“안녕 나는 테디야”

“나는 항상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인기가 많아”

“나는 하루종일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것을 좋아해”

“나에게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내가 기억할게”

“그리고 내가 너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너의 목소리와 너와의 추억을 드려줄게”

1년전 제가 군대에 있을때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린시절 절 돌봐 주시던 할머니를 코로나와 군복무로 인해 마지막 가시는길 배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할머니의 마지막 목소리를 녹음을 해주셨고, 녹음에서 흘러나오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어느정도 마음의 위안을 받았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디라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테디는 이 재밌는 이야기와 목소리를 소중한 사람들에게 남겨줬으면 합니다.